# 당첨 로또 번호의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방안

김도관\*

\*원광대학교(융복합창의 연구소)

## The Prediction Method with accumulated LOTTO numbers

Do-Goan Kim\*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and e-Commerce . Institute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E-mail: kimdg@wku.ac.kr

요 약

과거의 누적된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연성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분야에서의 예측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로또번호의 예측은 우연성이론에 근거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발생하는 예측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 **ABSTRACT**

To predict the future, the accumulated data can be fundamental basic. While many prediction methods based on contingency theory have been used, the prediction of LOTTO number can not be based on the contingency theory. But,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method to predict LOTTO numbers through using the change of the prediction capability on accumulated data.

## 키워드

LOTTO, Prediction, Accumulated Data

# 1. 서 론

인생역전을 꿈꾸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로 로또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서 가장 인기 있게 발행되는 복권은 바로 로또복 권이다. 각 나라마다 로또복권의 주당 발행회수나 추첨방식에 있어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 나라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02년 12월에 처음으로 로또복권의 발매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8145060분의 1로 매우 희박한 수준이다. 또한 당첨 로또 번호는 과거의 당첨 번호에 대한 확률적 연속성과는 별개로 무 작위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로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로또 번호를 예측하기도하면 추천하기도 한다. 그리고 약간의 확률기법들을 기반으로 하는 로또번호 추천 소프트웨어 및

앱 등이 등장하고 있다.

로또의 무작위성이 전제가 로또번호 추천과 같은 소프트웨어나 앱 등에서 추천하는 번호는 당연히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로또사이트에서는 당첨통계, 번호별통계, 색상통계, 구간별 출현횟수, 기간별 미출현 횟수, 홀짝번호 통계, 연속번호 출현, 패턴분석표 등을 제공하여 로또번호 선정에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Ⅱ. 본 론

로또 당첨의 무작위성을 전제로 하지만, 만약 과거의 당첨번호가 특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간은 그 패턴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변수와 상황 등을 고려한 로또 번호의 선정은 인간의 노력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은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과연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각각의 확률에 근거한 방법들의 예측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로또 당첨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주요 화두인 빅데이터 또한 그 데이터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빅데이터 속에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패턴들을 찾아내고 딥러닝과 같이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로또 당첨이 아닌 기존의 당첨번호들을 기반으로 하여 예측력이 높아지는 방법을 역으로 찾아감으로써 향후 빅데이터 활용의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예측방 법들의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예측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결과에 대한 예측 방법 을 수정하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회자	당충일자	당접변호		변호업
		홍수	짝수	57.5
751	2017-04-22	<b>3</b>	<u>@</u> @ @ @	115
750	2017-04-15	<ul><li>(1)</li><li>(2)</li><li>(3)</li><li>(4)</li><li>(4)</li><li>(5)</li><li>(6)</li><li>(7)</li><li>(7)</li><li>(8)</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i>(9)</li><l< td=""><td>2 2 5</td><td>97</td></l<></ul>	2 2 5	97
749	2017-04-08	<b>45</b>		155
748	2017-04-01	<ul><li>(i)</li><li>(ii)</li></ul>	<ul><li>2</li><li>2</li><li>3</li></ul>	111
747	2017-09-25	<b>a a a</b>	<b>12 13 23</b>	93
746	2017-09-18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b>12 36 42</b>	171
745	2017-09-11	<ul><li>(1)</li><li>(2)</li><li>(2)</li></ul>	<b>2</b>	50
744	2017-09-04	65 @ @		139
743	2017-02-25	(B) (D) (A)	<b>@</b>	174
742	2017-02-18	<b>13 3</b>	(i) (ii) (ii) (iii)	144

그림 1. 로또 번호 홀짝 통계



그림 2. 당첨번호 상위

변호대	미출현 번호리스트
1 ~ 10번	5 6 9
11~20世	11 13
21 ~ 30번	23 29 30
31 ~ 40번	33 33 39 39 40
41 ~ 45번	<b>4 4 3</b>

그림 3. 기간별 미출현 번호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예시는 로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당첨번호 관련 통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예측력이 어떻게 집계되는 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서 개인의로또번호를 선정하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한 수많은 로또번호 선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측력이 높은 방법으로 방법을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예측치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끝나버린다면 이는 무의 미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예측 력을 관리하는 방법론 또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한한 기업 활동에서 활용되어오는 진화와 혁신 의 방법이었다. 결론적으로 예측방법에 대한 예측 력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은 기업에서 마치 식 스시그마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Ⅲ. 결 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또번호의 당첨은 무작위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많은 확률이론 을 통해 로또 당첨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추적의 방법을 빅데이터 분야에 적용한 다면 인간이 아직 이론으로 정립하지 않은 패턴 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연역적 사고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인간이 정립하지 못한 이론 과 실제를 귀납법적 사고를 통하여 찾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에 더욱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매일경제 (2009). <로또 당첨조작 의혹 규명 한다>, 2009년 5월 18일 기사, 서울. 한국조세연구 원 (2003).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서울.
- [2] Boland, P. J. and Pawitan, Y. (1999). Trying to be random in selecting numbers for lotto.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7.
- [3] Chaitin, G. J. (1975). Randomness and mathematical proof. Scientific American, 232, 47-52.
- [4] Chen, S. H. and Chie, B. T. (2008). Lottery markets design, micro structure and macro behavior: An ACE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7, 463-480.